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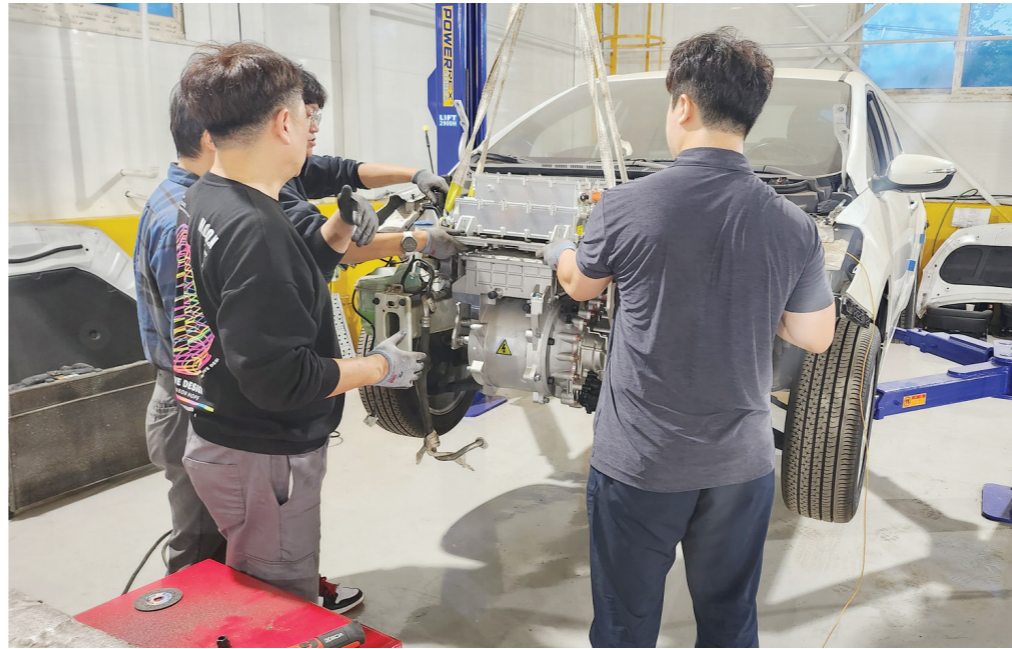
영암군, 올해 개조 전기차 주행안전성 실증 완료한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2년 차 순항

36개 연구기관 참여...2025년 전국 상용화 전망

영암군의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2년 차를 맞아 순항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미래차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암군은, ㈜라라클레식모터스 등 6개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비 92억원, 지방비 46억원, 민자 19억원 등 총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영암군을 중심으로 목포시와 해남군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개조 전기차 주행, 제작 실증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영암군은 올해 안으로 개조 전기차의 주행안전성 실증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때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를 감당하는 주행안전성 실증이 한창이다. 동시에 영암군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1단계 운전면허 시험차량 전기차 개조, 2단계 택배 화물차량 전기차 개조, 3단계 전기차 개조 표준화를 거친 다음 해외수출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개조 전기차 전국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암군의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30년까지 3,580억원의 매출과 300명 고용창출 등 직접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업 초기 전망됐다. 자동차산업벨리 조성 및 개조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으로 연 1,500억원의 개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7,400억원의 택배화물차와 운전면허학원 노후차 국내시장, 6,150억원의 동



남아 수출 중고차와 클래식카·캠핑카 시장에서도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영암군은 내다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조 전기차 사업은 지역

의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자리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 특구 참여 기업 유치로 개조 전기차 시장을 영암군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고령농·여성농업인 충전식 분무기·예취기 지원

무안군은 오는 4월 15일까지 올해 신규사업인 ‘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충전식 분무기·충전식 예취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고령·여성농업인이 가벼운 충전식 분무기와 예취기 사용을 지원해 농작업 능률 향상과 소규모 경작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비·지방비 1:1 비율로 농가당 1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농산물 실제 경작하는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중소농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원예과(☎061-450-4062)로 하면 된다. 함경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고령농·여성농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노인복지관,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 시작

영광군은 3월부터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영화관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영광군노인복지관에서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의 일정에 맞춰 경로당에서 운영되며, 영화는 어르신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제공된다.

앞으로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문화 관심도 상승,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행복과 만족을 높이는 데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치유농업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실시

고창 행복한 치유농장·김제 꽃다비팜 농장 방문 실습수업 진행

함평군은 지난 3월 27일 “치유농장 운영 농가 25명이 전북에서 치유농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일정으로 고창군 행복한 치유농장에서는 치유농장 운영 기법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론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2022년 김제시 최초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6차산업 및 농촌교육농장에도 지정된 김제시 꽃다비팜 농장을 방문해 농장 현장 견학과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실습수업을 진행했다. 김정석 함평군 치유농업연구회장은 “생명을 가꾸는 과정에서 얻는 치유효과와 그에 따른 성취감은 대단한 가치를 가진다”며, “이번 견



학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눈뜨는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내 치유농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야근없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군을 치유농업의 선두 주자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지도전통시장 안전·친절 교육 개최

지도읍사무소에서 전통시장 상인 대상

신안군은 3월 28일 지도읍사무소에서 지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신안소방서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친절 교육은 고객 응대 기법, 상인 정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의 확대 등 신안군 및 상인회, 신안소방서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물을 점검했다. 윤관철 상인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요즘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교육을 해주신 신안군청과 신안소방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도전통시장의 소방안전과, 쾌적한 시장환경조성, 그리고 친절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어울림도서관, 도서관 주간 행사 운영

목포어울림도서관이 제6회 도서관 주간(4.12. ~ 18.)을 맞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주제로 4월 중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행사로는 이우리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 샌드아트 공연 ‘모래위, 동화이야기’, 도서관에서 만나는 ‘신비한 마술 학교’,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강좌가 운영되며 이외에도 이용자가 직접 좋은 책을 추천하는 ‘나의 인생책’, 이

우리 작가의 대표작 ‘북극곰 코다’원화 전시를 진행한다. 행사는 유아와 초등학생, 성인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공연 및 강좌는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https://www.mokpolib.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